

시

강태산

물 위의 이름

남강의 소요는  
태양빛마저 강 위에서 떨리고  
운슬은 전장의 북소리로  
느리고도 위엄 있게 변저가지만  
당신은 거대한 숨을 삼킨 채 시간을 달려 능지(陵遲)의 슬픔으로  
부고를 알리네

당신은 스스로 강물로 걸어 들었네  
당신의 죽음은 역사의 문을 가르고 지층을 흔들며 시대의 어둠을  
밝혔지만 강물에 떠도는 당신의 한을 역사의 비명으로 돌리기에  
는 가슴 한복판을 가르는 그날의 통곡을 억제할 수가 없네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잠시 울음을 멈추고 결의에 경의를 보내니 하나  
의 서사요 하나의 등불이라네

(남강의 성루에 바람이 일고...)


역사의 길 위에 선 당신의 이름  
그 어떤 폭풍도, 그 짙은 안개도  
구국의 봉화는 꺼지지 않고 불꽃이 되리라

불멸의 이름  
물 위의 이름

논개... 논개여...!

약력

▲문학박사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시

김소정


내 마음의 풍경

오롯이 난 오솔길  
검붉은 황톳길  
생기 어린 몸짓으로  
하늘을 향한 적송들  
반짝이는 햇빛 한 줄기  
바람결에 실려 온 꽃 내음

아름다운 허명으로  
파랑새 찾는 희망의 노래  
환상의 가슴 떨림으로  
별을 바라본다  
무지개를 꿈꾼다

약력

▲문학예술 등단, 신인상 수상  
▲전남여고문인회, 영호남문학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한국작가회 상임이사  
▲광주작가협회 부회장



시


장미자

소쇄원 매화

세월을 머리에 이고 가는 행렬  
꼬리 물고 달린다  
소쇄원의 용광로에 손 씻으면  
조용히 탄생하는 불면의 추억들  
시간의 광풍각 옥류  
모진 추위 속 어둠 뚫고  
오백 년 거슬러 부푼 매화  
그 고매한 사랑이 궁금해진다.

약력

▲문예사조 시 등단  
▲광주문인협회 이사  
▲광주시인협회 회원  
▲대한시인협회 시 최우수상 수상



수필

수필영역

그 먼 곳

그 먼 곳, 이화두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실타레로 자리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 조그마한 기업을 맡아 달라는 당부를 거절 못 하고 부임한 지 2년쯤 지난 어느 여름휴가 때였다. 광주에 근무할 당시 단골로 드나들던 거의 포장마차급 주막집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오후, 약속 시간에 도착했다.

이 주막집을 단골로 삼은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만나면 그냥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통행금지 예비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마시며 답답한 세상사를 털어놓곤 했다. 주정뱅이 철학을 제법 고상하게 풀어가는 선배가 주막 선배이기도 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대폿집은 겨우 의자가 네다섯 개밖에 없다는 것과, 늦게 가면 낮은 사람과 엉덩이를 맞대고 앉아야 한다는 것과, 맞닿은 엉덩이와 순식간에 친구가 되어 젓가락도 함께 쓸 수 있어서 도시의 단절 문화를 허파하는 쾌감이 눈물겹도록 좋아서였던 듯하다. 또 하나 주모의 평파집한 외모와 무한 신뢰의 넉넉한 마음이, 즉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누님이 아우들을 거두는 것 같은 경영 방식이 좋았다. 돈 역시 자기가 먹은 술병을 스스로 계산하여 돈통에 투척하도록 하는 신뢰 영업 방식이 퇴근 시간이면 의사 시인 목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음이다.

우리는 너무나 주모를 ‘누님’이라 호칭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시간이 아쉽다면 “나 먼저 갈탕계 더 마시고 싶으면 적어놓고 가 임” 이러하니 영락없는 누님이었다. 주인은 먼저 퇴근하고 고객들에게 문단속까지 시키는 평파집한 누님은 지금 어느 먼 곳에

서 안락하신지 궁금하기도 하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손님은 없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볼썽 들어선 나에게 “아이고 동상(동생)!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갔다 왔당가? 궁금했제” 의자도 그대로이고 검게 그은 양은술도 그대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연신 앞치마로 손을 비벼 닦으며 내 대답을 기다린다. “경주로 간 지가 2년이 지났지요.” “아이고 그 먼 곳까지 왜 갔당가?” “직장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요. 누님!” 친구가 오고, 반가는 옛 선배들도 만나고 집으로 오는 늦은 시간의 버스 속에서 차창 밖 험란한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고 있는 나의 뇌리에 스펀지처럼 떠오르는, 아까 누님이 한 말, 그 먼 곳! 아마 서울이었다면 말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텐데 경성도라서 그렇게

말했을 공산이 크다. 심리적 거리일 것이고, 아니면 문화적 거리라 해야 하나, 정치적 거리라 해야 하나 왕래가 빈번하지 않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그 먼 곳이라는 말을 써서 유배지에 간 동생을 측은히 보는 듯한 그 표정이 오랫동안 차창에 어른거렸다.

멀다 하는 것은 어느 지점으로부터라는 시작점이 필요하다. 광주로부터라는 시작점일 테지만, 그렇다면 광주는 어디서 먼 곳인가? 그렇게 보면 멀고 가까운 곳은 기점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고향은 가깝고 타향은 멀다는 개념이 모호해진다. 생각해 보면 가까운 고향이라고 이름 붙일 곳도 아니라는 생각에 갑자기 자신이 부평초로 느껴져 서글퍼진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도 어디에서 먼 곳이고, 또 다른 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편의상 만들어놓은 약속


으로써 삶 속의 허상이지 내 마음을 그리움으로, 거리감으로 흔들어 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즈음 버스는 종점에 멎었다.

오직 지금, 여기, 나만이, 나의 실상, 지구별 여행자 이하도 이상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자신에 대한 소중성, 절대성이 확연해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다. 대신에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서야 할 나이가 된듯하다.

나의 정신 육신의 고향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고향은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

약력

▲한국수필가협회 등단  
▲광주수필문학회 회장  
▲문학춘추사, 수필 등단  
▲광주문인협회 회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